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제202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종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인(출판국)
- 박형순(동아에드넷)
- 빈정훈(동아MD)
- 안재혁(재경국)
- 양형모(스프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사이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이태윤(동아이지에듀)
- 정기상(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5)

콘텐츠-마케팅 젊은피 수혈 동아 '쌍발엔진' 강해집니다

올 가을 반가운 새 식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을 거친 기자·PD 10명이 수습 입사했습니다. 영업·마케팅 전문 인재들도 곧 한 식구가 됩니다. '퀄리티 저널리즘'과 '콘텐츠 수익가치 극대화'의 쌍발엔진이 더욱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9월 말 시행됐는데요, 본사는 언론의 투명성과 준법 의식을 높이는 선도적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미디어기업으로 한층 더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올 여름 수습연계형 인턴 과정을 거쳐 9월 초 입사한 수습 기자·PD들이 9월 21일 서울 종로구 계동 인촌 김성수 선생 고택을 찾았다. 수습사원들이 인촌고택 뒷뜰에 있는 정자에 올라 환하게 웃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수습등용문” 채용연계형 인턴, 날다!

DNA 인턴 8기 42명 중 10명 수습기자·PD로 입사 선배들 “함께 일하며 관찰하는 게 가장 정확한 평가”

“불편한 취재원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고,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잠입 취재도 훌륭했다.”(보도본부 A 기자)

“심층기획을 준비하며 과거 판례를 분석하고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균형감 있게 취재했다.”(편집국 B 기자)

“영상 편집기 조작법을 배울 때 거침 없이 질문하며 모든 과정을 자신의 지식으로 흡수하려는 자세가 돋보였다.”(제작본부 C PD)

동아미디어그룹의 채용연계형 DNA 8기 인턴의 멘토를 맡았던 입선 기자와 PD들의 관찰평가 내용이다. 이들은 이 구동성으로 “함께 일하며 관찰하는 게 가장 정확한 평가”라고 입을 모았다. 본사의 명품 인턴십 프로그램인 ‘채용연계형 DNA 인턴’ 제도가 해를 거듭하면

서 인재 채용의 관문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지난해 7명의 인턴 기자·PD가 본사 수습사원으로 채용된데 이어 올해에도 10명이 인턴 기간 동안의 역량을 인정받아 수습 입사했다. ‘채용연계형’에 걸맞게 DNA 인턴에 지원하는 예비 언론인의 마음가짐과 ‘진짜 후배’를 뽑겠다는 입선 기자·PD들의 자세도 확 달라졌다.

‘입사 지름길’이 된 DNA 인턴

DNA 8기 인턴 지원자 약 1000명 가운데 최종 선발돼 동아미디어그룹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낸 인턴은 모두 42명. 이중 신문기자 4명, 방송기자 3명, PD 3명 등 총 10명이 동아미디어그룹의 새 가족이 됐다. 이들은 6주간 선배 기자와 PD

의 관찰평가를 바탕으로 수습공채에 준하는 실무평가와 부서장 심층면접, 경영진 최종면접 등 꼼꼼한 평가를 거쳤다. 이들 이외에 7명은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아 수습공채에서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무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29명 가운데 12명의 인턴이 △활동 종료 후 즉시 채용 △패스트트랙을 통한 채용 등으로 입사한 바 있다. 이처럼 채용연계형 DNA 인턴을 매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미디어그룹의 핵심 역량인 콘텐츠 제작 부문에 대한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와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1석 3조’ DNA 인턴

DNA 인턴은 △이론과 실무를 맨투맨 방식으로 교육받고 △동아일보와 채널 A의 조직문화를 체험하며 △채용의 기회까지 거머쥌 수 있다는 점에서 1석 3조의 혜택을 누리는 프로그램으로 예비 언론인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채용연계가 확정돼 9월 19일 입사한

이민형(27·연세대 경제학) 채널A 수습 기자는 “경쟁사 인턴도 해봤지만 사실 잡일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며 “여기에서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나 ‘열정 페이를 강요당하는 알바생’이 아닌 ‘정말 후배’로서 교육을 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채용으로 연계되지 못하더라도 평가 결과를 인턴 전원에게 피드백해주는 데 대한 예비언론인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채용연계에 실패한 인턴은 평가결과와 피드백을 받은 뒤 “한 사람, 한 사람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안다”며 “동아미디어그룹이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차지완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장은 “채용연계형 인턴제에는 인재를 조기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인재경영 방침이 담겨 있다”며 “2년 연속 채용전환자가 대거 등장하면서 내년에는 더 우수한 인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안건우

“스마트 농업으로 새 시대 열자”... 2016 A Farm Show 5만5000명 성황

창농·귀농 관련 ‘생생 노하우’ 공유하는 국내 유일 박람회 TED 형식 ‘농담(農談) 토크’... “실질 정보 얻었다” 시민들 호평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2016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가 8월 26-28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aT센터에서 열렸다. 올해 3회째를 맞는 ‘A FARM SHOW’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들이 농업에서 창조적인 비전을 찾도록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알리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A FARM SHOW’를 관람한 시민들은 5만5000여 명에 이른다. 창농과 귀농귀촌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생생한 창농 노하우까지 한자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박람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농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업체가 다수 참가했다. 전국의 60개 광

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귀농 희망자를 위한 상담 부스를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행사장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기술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젊은이들에게 농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창농을 통한 고용창출이 국가적 과제를 강조했다.

8월 27-28일에는 창농·귀농 희망자들이 선배 창농인들과 귀농 전문가들을 만나 서로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농담(農談) 토크’가 열렸다. 미국의 세계적인 지식 강연인 ‘테드(TED)’ 형식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관람객들로 만원을 이뤄 일부는 뒤에 서서 강연을 들을 정도였다. 관람객들은 “실질적인 귀농 정보와 농업 분야 창업에 대해 알 수 있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8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6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 개막식에서 모형씨앗을 심은 화분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참가자들은 “박람회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를 주변에 공유하고 싶다. 동아일보에서 후속기사도 꼭 연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행

사 첫날인 8월 26일 축사에서 “앞으로도 창농·귀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고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 수출 산업으로 일굴 창농 최고경영자 양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소비자경제부 한우신

채널A 뉴스, 새 얼굴로 새 단장

보도본부 하태원 광정아 기자, 10월부터 평일 종합뉴스 진행 평일 시사프로그램에 20대 현장 기자들 앵커로 전면 기용 어린이 시청자 위해 인기 애니메이션 '뽀로로' 오전 7시 편성

채널A가 올해 12월 개국 5주년을 앞두고 시청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새로 단장했다. 또 교양성을 강화한 아침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어린이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편성했다.

채널A의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채널A 종합뉴스'는 10월 3일부터 보도본부 정치부 하태원 부장과 광정아 기자가 진행한다. 하 앵커는 정치부 등 취재 일선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 기자이며 광 앵커는 패기 넘치는 젊은 여가자로 신구의 조화를 이뤘다.

종합뉴스는 이번 앵커 교체 계기로 역동성과 현장성을 더욱 강화했다. 새로 마련된 '광정아가 간다' 코너에서는 앵커가 직접 사건 현장을 취재해 보도하거나 화제의 인물을 찾아 인터뷰한다. 또 뉴스 스튜디오를 둘러싼 대형 미디어 월을 이용해 앵커가 3개 면을 이동하면서 입체적으로 뉴스를 진행한다.

평일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조아라(정치부) 조영민(정치부) 황수현(사회부) 등 20대의 젊은 현장 기자들을 앵커로 기용해 젊고 활기찬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캐드난마는 정영욱 보도본부 부본부장이

새 앵커를 맡는다.

평일 오전 10시 반~11시 50분 신설되는 시사토크쇼 '이슈 투데이'는 천상철 정치부 차장과 여인선 기자가 진행한다. 주말에는 안형환 전 국회의원이 진행을 맡는 '안형환의 시사포커스'(토 오후 6시~7시 20분)를 새로 선보이며, 김태현 변호사가 '뉴스뱅크'(일 오후 4시 30분~6시) 진행을 맡는다. '채널A 종합뉴스' 앵커였던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박상규의 이슈 속으로'(일 오전 10시 40분~정오) 진행을 맡는다. 정치부 심정숙 차장과 임수정 기자가 각각 메인 앵커를 맡는 '일요매거진'(일 오후 6시~7시 20분)과 '뉴스스테이션'(토 오후 4시30분~6시)도 매 주말 시청자를 찾아가는다.

평일 아침에는 톡톡 튀는 분위기로 풍성한 정보를 전하는 교양프로그램 '김현욱의 굿모닝'은 10월 10일부터 신설된다. 진행자인 김현욱 아나운서는 친근한 이미지로 최근 상승가를 올리는 방송가의 '블루칩 MC'다. 여기에 상냥한 이미지의 추혜정 채널A 기상캐스터가 김 아나운서와 호흡을 맞춘다.

'굿모닝'은 월요일~목요일 오전 7시 40분~오전 9시, 금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기존에 방영되던 '아침경제 골든타임'을 대체한다. '굿모닝'은 집안 살림, 음식, 뷰티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전달하고 생활법률, 재테크 등 여러 주제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계획이다.

어린이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 '뽀로로'도 채널A를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가는다. '뽀로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최근작인 '뽀롱뽀롱 뽀로로 시즌6'이 10월 10일부터 평일 오전 7시에 방영된다. 인기 애니메이션의 아침 편성으로 어린이 시청자들의 아침이 한층 더 즐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은지



10월 3일부터 채널A 종합뉴스 평일 앵커로 새롭게 진행을 맡은 보도본부 정치부 하태원 부장(왼쪽)과 광정아 기자.



9월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전 세계 예능프로그램의 대제전 '골든로즈 시상식'에서 BBC, ITV, Channel4 등 영국 방송사 관계자들이 수상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힘드시죠, 위로해드릴게요” 잔잔한 예능, 지구촌 대세

세계 예능프로그램 대제전 베를린 '골든로즈 시상식' 관전기 방송포맷 업체들 중국에 눈독... “포맷 수출 기회로 살려야”

'골든로즈 (Rose d'Or A Eurovision Awards) 시상식' 국내에선 낯선 이름의 시상식이지만 매년 유럽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 주요 40개국의 방송사들이 대표 예능프로그램을 내놓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무대다. 역사도 50년이 넘는다. 9월 12-1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골든로즈 시상식'은 세계 각국의 방송 제작자들과 교류하며 프로그램의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프로그램 포맷수출 시장으로 중국을 공략하려는 세계 우수 방송사들이 중국 방송 콘텐츠 열풍의 진원지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 이들과 협력 또는 경쟁하려면 상대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 때 유행처럼 번지던 떠들썩한 오디션이나 상황을 극한까지 몰아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한 편도 올라오지 않았다. 음악 예능도 없었고 포맷시장의 단골인 퀴즈쇼도 극소수였다. 대신 현실의 잔잔한 감동과 리얼리티를 살려 만든 예능프로그램이 많았다.

신개념 예능 'If walls could talk'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스웨덴 방송사 SVT가 만든 'If walls could talk(벽이 말을 한다면)'이었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리노베이션(집 고치기) 프로그램'이지만 뭔가 다른 대목이 있다. 이야기거리가 있는 오래된 주택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우리를 향해 자신에 대해 말을 한다는 콘셉트다.

올해 수상작은 영국 방송사가 석권

올해 골든로즈상은 영국 방송사들의 예능프로그램들이 석권했다.

코미디 부문은 같은 기차에 탄 승객들 간의 좌충우돌을 소재로 한 BBC '인사이드 넘버나인(Inside No.9)', 게임쇼 부문은 즉석에서 출연자를 뽑아 대결하는 퀴즈쇼 ITV '픽미(Pick Me)', 시트콤 부문에서는 외딴 마을로 이주하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Channel4 '라이즈드 바이 울브즈(Raised By Wolves)' 등이 수상했다.

시상식 그 자체보다 눈길을 끈 것은 시상식 하루 전 열린 '유로비전 크리에이티브 포럼(Eurovision Creative Forum)'이었다. 골든로즈상이 작품성을 우선 고려한다면 이 포럼은 포맷의 시장성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 소개하는 자리다.

포맷은 콘텐츠의 '조리법(recipe)'이다. 프로그램 안에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를 관통하는 철학과 구조가 명확하고 전 세계 어느 시청자에게든 공통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포맷 시장의 '물건'이 될 수 있다. 올해 포럼에는

중국 포맷시장 급부상은 중대한 기회

최근 중국의 방송 시장이 세계로 열리며 프로그램 포맷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빅브라더(Big Brother) 등 유수의 프로그램을 만든 엔데몰(Endemol) 등 세계적 포맷 회사들이 아시아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건 중국의 성장가능성 때문이다.

롯데 높은 유럽의 포맷회사들도 중국에서의 '대박'을 기대하며 중국 내 인기 예능프로그램 포맷의 진원지인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일부 방송 포맷업체들이 아시아 지사를 두기 시작했고 한국 방송사들에게 공동기획이나 공동제작을 하는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

골든로즈 시상식에 참여하며 국내는 물론이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전 세계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즐겼듯이 우리도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머지않아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제작본부 제작3팀 이진민



유로비전 크리에이티브 포럼에서 프로그램 포맷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된 스웨덴 방송사 SVT의 'If walls could talk(벽이 말을 한다면)'.
We visit elegant villas.

“메인앵커 마이크 내려놓으니 마라톤 완주한 기분”

종합뉴스 박상규 김설혜 앵커 9월 30일 방송서 마지막 클로징 토크 진행자, 기자로 새 출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종합뉴스를 진행하면서도... 매 순간이 영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9월 30일 채널A 종합뉴스 클로징에서 김설혜 앵커는 목멘 소리로 말했다. 박상규 김설혜 앵커가 5년 가까이 해온 메인뉴스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였다. 개국 멤버인 박 앵커와 채널A 공채 1기로 입사한 김 앵커는 개국 직후부터 메인뉴스 진행자라는 중책을 맡아왔다.

생방송 뉴스는 한 사람만 실수해도 전체가 무너지는 '오케스트라'다. 프로그램의 얼굴이자 '지휘자'인 앵커의 중압감은 클 수밖에 없다.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메인뉴스 마이크를 내려놓을 때 마라톤을 완주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10월부터 각각 시사토크프로그램 진행자와 사건팀 기자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박 부본부장과 김 기자(보도본부 사회부)를 인터뷰했다.

마지막 방송을 마친 소감은

“메인뉴스 앵커로서 중압감이 많았다. 기자와 여러 스태프가 함께 만드는 뉴스지



박상규 부본부장 김설혜 기자

만 시청자와 직접 만나는 앵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대과없이 유종의미를 거두면서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돼 안도감이 든다(박 부본부장).”

“메인뉴스는 함께 성장해온 친구이자 나를 길러준 엄마와 같은 존재다. 목소리가 떨려 카메라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5년 전이 떠오르면서 옆에서 많이 가르쳐 준 박상규 부본부장을 비롯해 오랫동안 지켜봐 준 스태프들에게 고맙습니다(김 기자).”

앵커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지난 5년 간 우리 종합뉴스는 계속 도전하고 발전해왔다. 개국 직후 지상파 메인뉴스의 틈새를 공략한 오후 8시 30분 뉴스로 시작해 하루의 뉴스를 모두 아우르는 오후 9시 40분 뉴스로 변화했다가, 올해부터는 오후 7시 20분으로 시간대를 바꿔 가장 빠른 뉴스를 지향하고 있다. 그동안 기자들과 스태프들이 눈부시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왔고 시청률도 많이 올랐다. 동료들의 땀방울이 메인뉴스를 통해 빛을 발할 때 희열과 보람을 느꼈다(박 부본부장).”

메인뉴스 앵커로서 힘들었던 점은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을 전할 때 슬픈 마음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았다. 진행자로서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팩트를 전해야 하는 일이다보니 울어도 안 되고 웃음이나도 참아야 했다. 한 번은 방송 중에 웃음보가 터진 적이 있는데 경솔했다는 시청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주변 상황에 영향 받지 않고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김 기자).”

토크쇼 진행자와 현장 기자로서의 포부는

“메인뉴스 앵커는 짜여진 계획 하에서 정교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성을 발휘하는 데 제약이 있다. 방송경력 29년의 경륜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뉴스의 깊이와 이면을 풀어내는, 진행자의 캐릭터와 색깔이 살아있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보고 싶다(박 부본부장).”

“사회부 기자로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시청자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그동안 뉴스 진행자였다면 앞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종합뉴스와 함께 할 것이다(김 기자).”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광영

채용과 교육 양날개로 영업·마케팅 역량 확 키운다

**영업·마케팅 부문 집중 경력공채... 최종합격자 곧 입사
사우 120명 대상 체계적 마케팅 교육... MBA 등 기회 확대**

‘쌍발 엔진이 가동됐다!’

동아미디어그룹에서 기자와 PD가 콘텐츠 생산을 통해 ‘퀄리티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다면 세일즈·마케팅 인력은 다양한 시장에서 콘텐츠의 수익가치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6년은 영업·마케팅 인력채용과 역량강화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변곡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영업·마케팅 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것은 물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최초의 ‘영업·마케팅 경력공채’

8월 10일부터 시작된 영업·마케팅 경력공채가 최근 마무리돼 6명의 최종 합격자가 입사를 앞두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 미디어랩A 등 미디어그룹 차원에서 영업·마케팅 분야에만 초점을 맞춘 경력공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채용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직무는 모두 5개다. 디지털광고마케팅, 미디어커머스, 글로벌콘텐츠세일즈, 디지털

콘텐츠비즈니스, 통합커뮤니케이션마케팅(IMC) 기획영업 등이다. 고품격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미디어 플랫폼과 국경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업·마케팅 역량을 본격적으로 축적해나간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또한 올해 3대 경영방침 가운데 하나인 ‘콘텐츠 수익가치 업그레이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런 방침은 이미 지난해 10월말 미디어경영직 수습공채 때부터 가시화됐다. 당시에도 영업·마케팅 분야의 ‘새싹’을 육성하기 위해 모집분야 6개 직무 가운데 글로벌콘텐츠마케팅과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 5개 부문을 영업·마케팅 분야로 채웠다. 이렇게 입사한 12명은 영업 전문가, 글로벌 마케터, 디지털 마케터로서 착실히 성장해나가고 있다.

전사적 영업·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채용을 통한 외부 인재 확보와 동시에 기존 내부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올해 6월부터 동아일보와 채널A, 미디어랩A, 동아에드넷의 영업 마케팅 인력 120명 대상으로 영업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 대표강사인 이장석 한국영업혁신그룹(KSIG) 대표가 9월 7일 사우들에게 ‘영업에 임하는 마인드 세팅’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훈련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 동아일보, 채널A, 미디어랩A, 동아에드넷 등 4개 회사의 영업·마케팅 인력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한 9월말 현재 12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것. 영업·마케팅 업무에 임하는 ‘마인드 세팅’ 교육부터 고객을 설득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스킬을 배우는 심화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사적으로 영업·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이 이뤄진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영업·마케팅 교육의 중요성은 올해 초 동아미디어그룹의 경영간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 ‘인사이트포럼’에서부터 강조됐다. 당시 특강을 맡았던 이장석 한국영업혁신그룹(KSIG) 대표(전 한국IBM 부사장)가 대표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동아미디어그룹이 이처럼 영업·마케팅 분야에 인적, 물적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지난해 ‘동아일보 3년 연속 흑

자’ 및 ‘채널A 흑자 전환 달성’이라는 자신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콘텐츠 제작 역량과 영업·마케팅 역량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동아미디어그룹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회사는 이밖에도 영업·마케팅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영업혁신 경영학 석사(MBA) 학위 과정 지원 등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송상훈

본사 청탁금지법 선도적 대응... 청렴문화 만들기 앞장

**9월 28일부터 법 본격 시행... 적용대상 사우 1000명 집중 교육
권익위·학계 해석 반영한 가이드북 배포... 본부장급 담당관 지정**

동아미디어그룹은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내 준법 의식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우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6개사(동아일보사, 채널A, 동아닷컴, 스포츠동아, 동아사이언스, 동아이지에듀) 임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에 걸쳐 법 세부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 심층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광화문 본사와 충청로 사옥, 상암동 DDMC(Donga Digital Media Center)에서 매회 1시간씩 24차례에 걸쳐 진행

됐다. 참가자들은 교육 직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며 준법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니(Genie)에 문답 게시판을 개설했고, 법 내용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북을 PDF 파일로 2차례 만들어 배포했다.

청탁금지법에 대비한 내부 시스템도 정비했다. 동아일보는 경영지원국장을, 채널A는 경영지원본부장을 각각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조사와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상담 등의 업



청탁금지법 시행을 3주 앞둔 9월 7일, 사우들이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9층 대회의실에 모여 법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무를 담당한다. 또 동아일보와 채널A는 사규를 개정하고 청탁금지법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도 만들어 사우들에게 공지했다.

본사는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이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직문화를 한층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퀄리티 저널리즘’ 구현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장수민

반려견 위한 힙합 ‘견습생’ ‘개밥남’ 양세형·세찬 형제 음원 발표

**윤일상-조PD-전지윤 등 국내 최정상 뮤지션 총출동
네이버 ‘V-Live’ 다음 ‘하트펀딩’ 등 온라인서도 화제**



채널A ‘개밥 주는 남자’에 출연하며 반려견을 위한 힙합곡 ‘견습생’ 음원을 발표해 화제를 모은 개그맨 양세형 양세찬 형제.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개밥 주는 남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양세형, 양세찬 형제가 9월 9일 프로그램에서 반려견을 위한 힙합곡 ‘견습생’ 음원을 발표하며 힙합가수로 데뷔했다.

국내 최초로 반려견을 위해 제작된 ‘견습생’은 음원 발표 이전부터 화제가 됐다. 윤일상(작곡), 조PD(프로듀싱) 가수 전지윤(피쳐링) 등 국내 최정상 뮤지션들이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견습생’ 뮤직비디오 제작에는 유명 개그맨이자 가수 UV의 멤버인 유세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1분 30초 분량의 이 작품은 양세형 양세찬 형제의 반려견 옥희와 독희가 몸에 소형 촬영카메라를 매달고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유세윤은 뮤직비디오 촬영 내내 현장 감독 역할도

맡아 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음원 발표 직전 네이버에서 진행한 ‘V-Live’ 생방송은 5000 명 이상이 시청했으며 출연진과 실시간 대화를 하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16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한 ‘하트 펀딩 프로젝트(하트가 일정한 수준으로 모이면 공약을 수행하는 공약이행 시스템)’도 이날 오후 하트 수가 50만을 돌파해 공약대로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영상 공개가 이뤄졌다.

제작본부 김경훈 PD는 “‘견습생’은 반려견을 위한 곡인만큼 출연진, 게스트들이 모두 음원 발매 프로젝트에 진지하게 임했다”며 “출연진의 음원 발표와 가수 데뷔는 채널A의 첫 시도여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이선정

북유럽 사람들 일상에 활력 불어넣는 디자인의 힘

**본사 주최 덴마크 디자인 전
예술의전당서 11월 20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 덴마크.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에 활력과 여유를 불어넣는 덴마크 디자인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본사는 예술의전당과 공동으로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덴마크 디자인 DENMARK : DESIGN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덴마크 디자인 역사의 상징적 기관인 ‘덴마크 디자인 뮤지엄(Design Museum Denmark)’과 함께 기획된 것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근대 디자인의 황금기 작품들이 다수 선보인다.

스칸디나비아의 거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합리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덴마크 디자인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전시장에 가면 덴마크 왕실의 꽃이 된 도자기 ‘로얄 코펜하겐’부터 1960년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의 미국 대통령후보 TV토론에서 케네디가 앉아 유명해진 한스 베그너의 ‘더 체어(The Chair)’까지 덴마크를 대표하는 디자인 작품 약 200점을 만날 수 있다. 또 우리에게 친숙한 브릭아트(LEGO), 프리미엄 스피커 브랜드 ‘뱅 앤 올루센(Bang & Olufsen)’의 시작을 알리는 빈티지 라디오 등 덴마크를 대표하는 디자인 작품들이 다수 전시돼 있다. 입장료는 어른 1만 원, 청소년 8천 원, 어린이 6천 원, 유아 5천 원. 문화사업본부 문화기획팀 이종원



‘덴마크 왕실의 꽃’으로 불리는 로얄 코펜하겐 찻잔 도자기. 덴마크 유명 디자이너인 요한 로데가 만든 ‘주전자’, 베르너 폰텐이 만든 ‘하트 콘 체어’(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출생년도 ② 최종학교 ③ 입사 후 포부 ④ 요즘 관심사



구득교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① 1990년
② 서강대 중국문화학·정치외교학
③ 많이 배우고 혼자서 동아일보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수습기자의 열정과 패기로 세상을 향한 변화의 단초를 만드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④ 최근 졸업을 해 3년 이상 지내던 학교 기숙사를 나와 새 방을 구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나만의 공간으로 꾸밀지 고민 중입니다.



최지선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① 1991년
②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③ 최종면접날 사육 옆 신문박물관에 들렀습니다. 역사의 순간마다 동아일보 기자가 있었더군요. 그 대열의 마지막에 제가 설 수 있게 돼 행복합니다. 단심(丹心)을 잃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④ 요즘 관심사는 단연 수습생활입니다. 선배들처럼 멋지게 하리꼬미를 해내고 싶습니다.



조윤경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① 1990년
②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③ 아직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배우는 단계지만, 앞으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매 순간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④ 힘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사람들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신규진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① 1989년
②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③ 처음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던 때를 떠올리며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④ 평소엔 잠이 많고 잠귀가 어둡습니다. 수습 생활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 잠을 줄이고 싶습니다.



백승우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① 1990년
② 서강대 사학·경영학과
③ 기사 가치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기르려는 선배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보도 한 건 한 건이 갖는 무게감을 명심하겠습니다. 채널A의 목적인 '단독왕'이 되고 싶습니다.
④ 스퀘시 대회에 출전 중입니다. 수습 전 마지막 체력 단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심민영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① 1991년
②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심리학과
③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일이 좋아서 기사를 꿈꿔왔습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고 공감할 줄 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④ 앞으로 수습 6개월 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뛰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민형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① 1989년
② 연세대 경제학과
③ 돌이켜보면 항상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뭉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④ 제가 응원하는 넥센 히어로즈가 올시즌 가을야구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2014년 잠실에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승을 기원합니다.



김경환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① 1989년
② 연세대 경제학과
③ 예리해야 할 때와 무뎌야 할 때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PD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웃어주고, 때론 날카롭게 관찰하는 PD가 되겠습니다.
④ 예능과 교양 장르를 과감히 넘나들며 경계를 허무는 PD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편집실에서도 열심히 발로 뛰는 PD가 되겠습니다.



최윤영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① 1992년
② 서울대 서양화·정보문화과
③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30년 후의 나'라고 답을 합니다. 그 모습이 되게 하겠습니다.
④ 무엇에 홀린 게 분명합니다. 그날 동네서 점을 뺨뺨 돌다가 책을 아주 왕창 사버렸습니다. 그저 책장 전시용으로 모셔두기엔 들 어간 용돈이 작지 않습니다. 완독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박진우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① 1992년
② 고려대 언론학과
③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 따뜻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④ 다큐멘터리에 게임 형식을 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심리학에 관심이 생겨 이 분야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PD가 되겠습니다.

채널A, 미국 교포 시청자들 찾아갑니다

美 최대 한인 방송사 TVK24에 10월부터 프로그램 공급

채널A 주요 프로그램들이 미주 최대 한인 방송사인 Television Korea 24(TVK24)를 통해 미국 내 한국인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채널A는 9월 21일 TVK24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TVK24는 올해 10월부터 채널A 종합뉴스와 예능·교양 프로그램을 미주지역에 방영할 예정이다.

채널A는 TVK24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을 시작으로 미주지역에 프로그램 공급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인 교포 시청자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채널A의 브랜드 및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VK24는 미국 최대 케이

블TV인 컴캐스트의 투자를 받아 2005년 개국했으며 미주 내 교포 채널 중 방송 도달 가구수가 가장 많다.

TVK24는 현재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미국 동부와 알래스카주 등 미국 전역 3000만 가입 가구를 대상으로 두 개 채널(tvK, tvK2)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경영전략실 글로벌비즈니스팀 운영실

방송말 바꾸기

'역대급'은 틀린 신조어 '역대 최상급' '역대 최대급'이 맞습니다

'역대급'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검색 포털은 이 신조어 의미를 '역대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설명한다.

역대(歷代)는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대, 또는 그동안'이란 뜻. 한자 그대로 그 의미는 '지난 대(代)'이다. '조선 600년의 역대 왕들' '우리가문의 역대 조상들' 이런 식으로 쓴다.

그 대(代)를 통틀어 가장 크거나 가장 높거나 가장 강한 상태를 표현할 때에 '역대 최대' '역대 최고' '역대 최강' 따위의 수식어로 써왔다. 역대 총장(여러 대에 걸친 총장들), 역대 전적(그동안의 전적)처럼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역대'에 '급(級)'이란 접미사가 붙어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 '역대급'이 수년 전부터 등장했다. 주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서 많

이 보인다. 아마 젊은 작가들이 자막 초안을 꾸밀 때 '강력하다' '월등하다' 등의 의미로 빈번하게 쓰고 이를 젊은 층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표준말로 잘못 알고 받아들인 경우로 보인다.

한번 유행어로 정착되니 신문기사 제목으로도 많이 쓰인다. 많은 매체의 기사 제목으로 '역대급 캐스팅', '역대급 표정 연기' 등의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다. '역대급 사랑꾼'이란 표현까지 나올 정도이다.

하지만 역대급은 억지 조어이고 표준어가 아니다. '굉장한' '대단한' '최고의' 이런 수식어에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기형적 신조어를 만든 셈이다. '역대 최상급', '역대 최대급' 등으로 쓰는 게 옳다. 심익실 심익팀 김용길

근력 비대칭 잡는 간단 운동법



한쪽 다리를 сог고, 한쪽으론 높은 생활 속 습관이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 생기는 '짜짜이 근육'은 근력 불균형을 일으켜 심한 경우 퇴행성관절염을 앞당기는 원인이 됩니다. 아래의 자세 교정 운동법을 꾸준히 따라하면 비대칭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리 근력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채 바닥에 누워 다리의 발뒤꿈치 아래에 접은 수건을 놓습니다. 무릎을 바깥쪽으로 굽혔다가 안쪽으로 굽히고 역순으로 움직여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근력이 약한 다리는 20번, 반대쪽 다리는 10번 반복합니다. 어깨 근력 비대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엎드려 등을 바르게 편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바닥을 지지합니다. 지지한 쪽 견갑골 부위에 힘을 주고, 반대쪽 팔로 방바닥을 쓸 듯 큰 원을 그립니다. 더 말린 쪽 어깨는 20번, 다른 쪽은 10번 반복합니다. 동영상은 통해 보다 자세한 운동법을 익히려면 프로그램 홈페이지(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활용하면 됩니다.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이선정

1. 다리 근력 비대칭 잡는 제트 운동



① 바닥에 바르게 누워 약한 다리의 발뒤꿈치에 수건을 대다.



② 무릎을 바깥쪽으로 굽혀 뒤꿈치가 반대쪽 다리 무릎 쪽으로 오게 한다.



③ 무릎을 안쪽으로 굽혀 뒤꿈치가 다리 바깥쪽으로 가도록 한 후 역순으로 움직여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2. 어깨 비대칭 잡는 방바닥 쓸기 운동



① 벽에 몸을 밀착시키고 좌우 어깨가 뜨는 정도를 자로 측정한다.(2cm 이상이면 어깨가 앞으로 말려있는 상태)



② 엎드린 자세로 등을 바르게 펴고, 앞으로 더 말린 어깨의 손으로 바닥을 지지한다.



③ 반대쪽 팔로 방바닥을 쓸 듯 크게 원을 그린다.(말린 쪽 어깨 20번, 반대쪽은 10번 반복)